

2. 목적의 관리에 대하여 (墨蹟의 管理에 대하여)

任 昌 淳

(文化財委員)

1. 목적(墨蹟)의 중요성(重要性)

문화재(文化財) 가운데에서 비교적 푸대접을 받고 있는 목적(墨蹟)은 사실상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다루어야 할 성질에 속한다.

그 이유를 다음 몇 가지에 나누어 지적하고자 한다.

가. 목적(墨蹟)은 그 자체가 어떤 스토오리를 갖고 있으며 연대(年代), 사실(史實), 내용 등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준다. 경주 석가탑(釋迦塔)에서 나온 형지기(形止記)를 함부로 다루어서 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온 다른 유물(遺物)의 연대 측정(年代測定)에 대한 실마리를 풀지 못하게 한 그 일예(一例)만 가지고도 그 가치(價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나. 목적은 그 시대(時代)의 문화수준(文化水準) 및 외국(外國)과의 문화교류상황(文化交流狀況)을 인식하는 데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현재 전적은 전하지 아니하더라도 금석(金石)에 나타나는 낙랑(樂浪) 및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서적(書蹟)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意義)만 보아도 알 수 있으며 일본정창원(日本正倉院)에 소장된 신라(新羅)의 장적(帳籍)은 그것이 단간(斷簡)에 불과하나 신라사연구(新羅史研究)에 막중(莫重)한 자료(資料)가 된다.

근년(近年) 중국(中國) 장사(長沙)에서 출토(出土)된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의 백서(帛書), 또는 무위현출토(武威縣出土)의 죽간(竹簡), 또 장사한고분(長沙漢古墳)에서 나온 노자(老子)의 고본(古本)(사본(寫本))등은 모두 천고미발(千古未發)의 귀중(貴重)한 문헌으로 다른 어떠한 예술품(藝術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사료(史料)이다.

다. 그 예술성(藝術性), 글씨는 옛 사람의 심서(心書)이다. 각(各) 시대성(時代性)과 각개인(各個人)의 특성(特性)이 살아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목묘(墨妙)의 신비감(神秘感)과 운율(韻律)의 유동미(流動美)를 감상케 하여, 생동미(生動美)와 우아미(優雅美)를 갖춘 고아(高雅)한 예술(藝術)이다. 그것은 깊은 학문과 작가의 인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기교의 정부(精否)만으로는 평가될 수 없는 높은 차원(次元)의 예술이다.

현대에 와서 그것이 실용성을 잃고 있으나 아직도 옛 명적(名蹟)을 전승(傳承)하고 있는 상당수의 작가(作家)와 새로이 정진(精進)하는 신예(新銳)들이 뒤를 잇고 있어 민족

문화(民族文化)의 견지(見地)에서 결코 경시(輕視)할 수 없는 비중을 가진다.

또 그것은 앞으로 옛 껍질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서의 조형예술로 지양(止揚)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으나 본론(本論)에서 다를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 문제는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2. 목적(墨蹟)의 종별(種別)

좁은 의미의 목적(墨蹟)은 종이, 천, 나무쪽 등에 먹 또는 물감을 가지고 직접 쓴 것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좀 범위를 넓혀서 생각한다면 금석(金石), 목판(木板), 전적(典籍), 사경(寫徑)을 위시하여 고필사본(古筆寫本), 고문서서찰(古文書書札)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여기서 금석(金石)과 전적(典籍)은 독립된 분야에서 가두어져야 할 것이므로 논의(論外)로 한다고 할지라도 여타(餘他)의 것만도 그 양(量)에 있어서 실로 방대한 수를 차지한다.

물론 그 전부가 다 문화재(文化財)가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시기(時期)까지 한계(限界)를 그어놓고 볼 때에 그것들은 하나도 버려서는 안될 것이니 그것은 예술품(藝術品)이며 사료(史料)며 기록(記錄)이기 때문이다. 나는 상기(上記)한 것 가운데 특히 다음 각항(各項)을 중심으로 논술하려 한다.

가. 감상을 목적으로 한 서적(書蹟)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일반에게 인식되고있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글씨가 곧 예(例)에 해당된다. 간혹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진적(眞蹟)으로 전(傳)하는 것도 있으나 그 진위(眞僞)가 문제되고, 조선조(朝鮮朝)에 들어와서 초기(初期)에 안평대군(安平大君)을 위시(爲始)한 세칭(世稱) 사대가(四大家)는 물론 그 밖에도 임란이전(壬亂以前)까지 많은 작가(作家)가 있으며 그들의 예술적수준(藝術的水準)은 중국(中國)에 떨어지지 않는 높은 경지에 이른 것이 많다. 다만 진적(眞蹟)이 희귀(稀貴)한 것이 유감인데 진적(眞蹟)임이 확인되는 것에 대하여는 빠짐 없이 지정조치(指定措置)를 거쳐 중요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임란이후(壬亂以後)의 작가(作家)의 수준(水準)은 다소(多少) 후퇴(後退)한 감(感)이 없지 않으나 각기(各其) 시대(時代)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니 먼저 작가(作家) 및 작품(作品)에 대한 정확한 심정(審定)을 실시(實施)하여 우수작가(優秀作家)의 우수작품(優秀作品)에 대해서는 역시 지정(指定)을 해야 할 것이다.

나. 시문첩(詩文帖)·간찰(簡札)

a. 시문첩(詩文帖), 문인(文人)들의 시(詩)와 문(文)을 주고받은 소위 창화첩(唱和帖), 또는 증행첩(贈行帖)등이다. 세종(世宗)때에 중국(中國)에서 사절(使節)로 나온 명사(明使) 예겸(倪謙)과 함께 주고받은 신숙주(申叔舟), 성삼문(成三問), 정인지(鄭麟趾)등 제대가(諸大家)의 작품집(作品集)인 「조선창화록(朝鮮唱和錄)」 안평대군(安平大君)의 「소상팔경시첩(瀟湘八景詩帖)」(현재(現在) 그림은 없어지고 태조조(太祖朝)의 석천봉(釋千峯)이하(釋千峯以下) 세종조(世宗朝)의 신숙주(申叔舟), 최흥효(崔興孝), 남수문(南秀文)등에 이르기까지 20여명(餘命)의 명가(名家)의 시첩(詩帖), 증별첩(贈別帖), 계회첩(契會帖)등이 많이 현존(現存)한다.

b. 간찰류(簡札類), 이것은 대략 다음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 역대서간집(歷代書簡集) : 첩(帖)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 종류(種類)에 속하는 것이 가장 많다. 고오세창씨(故吳世昌氏)가 고려조(高麗朝)에서 근세명인(近世名人)의 것들까지를 모아놓은 근역서휘(權域書彙)(현재(現在) 서울대박물관장(大博物館藏) 외(外) 2부(部)는 그 대표적이라 하겠으나 보다 오랜 연대(年代)에 수집(蒐集) 장첩(粧帖)된 것도 적지 않다. 이것은 한가지 서첩(書帖)에서 역대명인(歷代名人)의 수적(手迹)에 접할 수 있는 점에서 가장 귀중하다.

② 동일시대서간집(同一時代書簡集) : 대략 100년을 내외(內外)로 한 동시대(同時代)의 명사(名士)의 서간(書簡)을 모은 것이다.

③ 개인서간집(個人書簡集) : 한 사람만의 서간(書簡)을 모은 것으로 년전(年前)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 영인(影印)한 이황(李滉)의 「사문수간(師門手簡)」 같은 것이 이에 속하며 이채로운 것으로는 정조(正祖)가 심환지(沈煥之)에서 보낸 편지만을 모은 정조어필첩(正祖御筆帖)도 있다. 이런 것은 각(各) 시대(時代)의 높은 학자(學者)나 정치가(政治家), 또는 필가(筆家)의 것이 많이 있다. 이밖에 작첩자(作帖者)와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직계(直系), 방계(旁系)의 존속의 수적(手蹟)등 등 수집한 취지가 다른데 따라 그 필자(筆者)의 비중(比重)도 다소의 차이(差異)가 있다.

이 중에서 필자(筆者)의 이름이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거나 문(文)이나 필(筆)의 가치(價值)가 높지 않다든가, 연대(年代)가 최근(最近)에 속하는 것 등은 문화재(文化財) 범주에 들 수 없다. 이런 것을 제외(除外)하면 모두 관리책(管理策)이 마련돼야 한다.

④ 외국인서간첩(外國人書簡帖) : 주로 명(明) 청대(清代)의 중국인(中國人)의 서간(書簡)이다. 명대(明代)의 것도 몇점(點) 본 적이 있었다. 극히 희귀하고 정조이후(正祖以後)에 나온 청대인(清代人)의 서간첩(書簡帖)은 그 수(數)가 적지 않다. 이 중에는 아직 첩(帖)으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많다. 이것은 한국문화교류사료(韓國文化交流史料)로서도 매우 귀중하다.

⑤ 미장첩수적(未粧帖手蹟) : 미처 첩(帖)을 만들지 못하고 한장 한장씩 따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 양에 성첩(成帖)된 것 못지 않은 다수(多數)에 달한다.

위에서 열거(列舉)한 가운데 공공기관(公共機關)에 수장(收藏)된 것은 대개 ①②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밖에 각문중(各門中), 각개인(各個人)등이 가진 것으로 내가 직접 본 것만도 천종(千種)에 가깝다. 이 중에서 그 내용과 소재(所在)가 세상에 알려져 있는 것은 십여종(十餘種)에 불과하다. 또한 이것이 상인(商人)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첩(帖)을 해체하여 먼저 값진 것만을 골라서 팔고 나머지는 호지부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그것이 첩(帖)이 되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면 더욱 그 보존을 기대하지 못한다.

다. 고문서(古文書)

고문서는 정사(正史)를 뒷받침하며 또 그의 알맹이가 되는 사료(史料)다. 그 정의(正義)와 분류(分類)에 있어서는 학자(學者)에 따라 이견(異見)이 많다. 여기서는 다만 공사문서(公私文書)로서 그것이 관(官)에서 발행한 것이거나 개인이 발행한 것이거나 당시에 법적성격(法的性格)을 띤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물론하고 그것이 옛날의 정치(政治), 경제(經濟), 법제(法制), 문화면(文化面)의 사료(史料)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칭(指稱)한다. 현재 모여져 있는 곳은 서울대도서관(大圖書館)을 위시하여 국립중앙도서관

(國立中央圖書館), 국회도서관(國會圖書館), 기타(其他) 공립대학(公私立大學)에 산적(山積)되어있으며 학자(學者)들의 소장(私藏)도 적지 않겠으나 이것이 극히 소부분(少部分)을 제외하고는 정리작업이 전연 되지 못한 황무지상태에 있다.

또한 민간(民間)에 수장(收藏)되어 알려지지 않은 것, 상인(商人)의 손에 다른 것까지 끼어 들어가서 휴지취급을 받고있는 것도 헤일 수 없이 많다.

여기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것은 안동광산(安東光山) 김씨가(金氏家)의 문서(文書)로서 고려말(高麗末)에서부터 근대(近代)까지의 분재기(分財記), 호적(戶籍), 교지(教旨), 혼간(婚簡), 간찰(簡札), 시문수고(詩文手稿)등이 고스란히 그대로 보존되고있는 바 600년 동안의 문헌(文獻)이 빠짐 없이 전승되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보존기록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경제(經濟), 사회사(社會史)의 막중한 자료(資料)다. 이것은 이미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의하여 그 목록(目錄)작성에 착수하였으니 앞으로 학자(學者)들에게 공개(公開)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期間)의 문서(文書)는 아니라 할지라도 체계(體系)가 갖추어있는 자료(資料)는 다른 곳에도 상당히 많이 보존되고 있다.

라. 사본류(寫本類)

이곳은 분류상(分類上) 전적부문(典籍部門)에 들어갈 수 있겠으나 활자(活字)나 간각본(刊刻本)이 아닌 것은 묵적(墨蹟)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여 이에 해당되는 것을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본다.

① 고사경(古寫經) : 고려(高麗)에서 근세(近世)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전(佛典)의 사본(寫本)이 있다. 금(金), 은(銀), 주(朱), 묵(墨)등 여러 안료(顔料)를 썼으며 또 이것은 시중(市中)에서 고가(高價)로 거래(去來)되기 때문에 비교적 소중히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문화행정상(文化行政上) 그 실태(實態)를 파악하는 작업(作業)이 행해져야 한다.

② 자필고본(自筆稿本) : 유희춘(柳希春)의 미암일기(眉巖日記), 이순신(李舜臣)의 난중일기(亂中日記)등 몇종(種)은 벌써 문화재(文化財)로 지정되고 있으나 그 밖에 기발표(既發表), 미발표(未發表)의 명인(名人)의 일기(日記), 기행록(紀行錄), 시문고(詩文稿)등이 내가 본 것만도 백여종(百餘種)에 달한다. 그 내용의 가치(價値)로 볼 때 이미 간행(刊行)되고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귀중한 것이 적지 않다. 이번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의하여 소개된 영천군내(永川郡內) 이씨가(李氏家)의 병와일기(瓶窩日記)와 그 수고(手稿)는 좋은 예(例)가 된다.

③ 필사본(筆寫本)(초본(鈔本)) : 우리 나라에는 인쇄술(印刷術)은 발달되었으나 구매력(購買力)이 빈약하기 때문에 방각본(坊刻本)의 양(量)이 매우 부족하였고 특히 벽지에 사는 가난한 선비들로서는 판각서적(板刻書籍)을 입수(入手)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필사(筆寫)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새로운 지식욕(知識慾)을 채울 수 있는 문헌, 예를 들면 사가시(四家詩)나 열하일기(熱河日記)나 목민심서(牧民心書) 같은 것은 보는 대로 다투어 전사(傳寫)되어 그야말로 낙양(洛陽)의 지가(紙價)를 올릴 정도였다. 초본중(鈔本中)에는 책 자체가 유일본(唯一本)이거나 귀중본(貴重本)이어서 내용으로의 가치가 높은 것도 있지만 그 필법(筆法)이 들어 나게 잘 쓴 예술성(藝術性)을 가진 것도 많다. 초사자(鈔寫者)의 이름이 확인되며 또 그가 명인(名人)일 경우에는 더욱 귀중하다. 내가 가진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는 김정희(金正喜)의 문인(門人)이 추당서상우(秋堂徐相雨)의 수택본(手澤本)인데 추당(秋堂)과 4인(人) 글씨로 베였으며 권미(卷尾)마다 초사자(鈔寫者)의 이름을 밝힌 것이 이채(異彩)롭다.

마. 기타(其他)

이 밖에 직접 목적(墨蹟)은 아니라 할지라도 명적(名蹟)을 석각(石刻), 또는 목권(木券)에 의한 고첩(古帖)은 현재 희귀본(稀貴本)에 속한다. 중국에도 순화각첩(淳化閣帖) 등 송대(宋代)의 권첩(券帖)은 지금 거의 볼 수 없으며 명초(明初)의 것은 귀중품(貴重品)에 속한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안평대군(安平大君)의 분해당첩(匪懈堂帖)을 최고로 하며 해동명적(海東名迹) 같은 것도 보기가 어렵다. 이런 것은 금석(金石)을 제외하고 첩학자료(帖學資料)로서 서적연구상(書跡研究上) 당연히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 원판(原版)이 되는 석판(石版), 목판(木版)의 수(數)도 불소(不少)하다.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 경복궁창고(景福宮倉庫)에 보존된 역대 명첩(名帖)과 열성어필첩(列聖御筆帖)의 각석(刻石), 창덕궁창고(昌德宮倉庫)에 있는 조맹부첩(趙孟頫帖)의 각석(刻石), 지방(地方)에 있는 황고산초서(黃孤山草書)의 각석(刻石) 등이 있고 명인서적(名人書跡)의 목판(木板)도 각서원(各書院) 또는 명가(名家)의 후손(後孫)에게 진존(傳存)되는 것이 적지 않은데 이런것도 빠른 시일내(時日內)에 조사정리(調查整理)되어야 할 것이다.

3.결어(結語)

목적(墨蹟)은 상술(上述)한 바와 같이 그 가치(價値)가 귀중한데 비하여 훼손(毀損), 일실(逸失)될 우려가 가장 크다.

건조물(建造物)처럼 부피가 크지도 아니하며 금석재(金石材)처럼 질(質)이 단단하지도 않다. 풍한서습(風寒暑濕)과 충서(蟲鼠)의 해(害)로 시간이 흐를수록 부서지며 찢어져서 하나하나 없어지게 되며 또는 가진 사람의 무지로 인하여 벽이나 그릇을 바르든가 심지어는 아궁이에 불쏘시개로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한 반면 문화재(文化財) 행정당국(行政當局)에서 조금만 마음을 기울인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손쉽게 정리작업을 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재에 비하여 서적(書蹟)처럼 푸대접받는 것은 없는 듯하다.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1000년을 그대로 두어도 탈이 없을 매장물(埋藏物)을 발굴하기 이전에 적은 돈으로 재빨리 손댈수 있고 하루하루 인멸해 가는 이것을 잃어지기 직전에서 구출해야될 것이다.

첫째 공공도서관(公共圖書館)이나 박물관(博物館)에서 대량구입(大量購入)해야될 것이며 정부당국(政府當局)에서도 구입비(購入費)를 책정하여 사들이는 방도를 취해야 한다. 이 액수(額數)는 다른 건조물보수(建造物補修)로 나가는 돈에 비하여 몇 백분(百分)의 1만 가져도 상당한 수를 모아놓을 수 있다.

다음은 그 정리작업이 시급하다. 빨리 목록(目錄)과 해제가 나와서 그 족보가 편성되고 학자(學者)의 참고(參考)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영인본(影印本), 또는 활인본(活印本)을 발행(發行)하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